

대구주노

사순 제2주일
2012.3.4.(나해) 제177호



† 금주의 성화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셨으니,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 기도는 옛날 성지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자들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수난의 길을 따라 가며 묵상했던 것에서 기원한다. 지금처럼 성당에서 바치는 십자가의 길 기도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처음 시작했다고 전한다. 그 후 한동안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만 십자가의 길을 만들 수 있었으나 19세기부터는 모든 교구에 허락되었다.

이홍구(스테파노) 작
한국 가톨릭 이콘 연구소장

† 오늘의 전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르 9,2-10 참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드님이심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인류의 구원을 내다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자들의 대표로 나타나 주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하느님의 영광은 아드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제1독서 창세 22,1-2,9,10-13,15-18 제2독서 로마 8,31-34 복음 마르 9,2-10
화답송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습니다 • 3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먼저 양보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오!”



안병권 요한 신부 / 현풍성당 주임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고난을 겪으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부딪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시기를 어떻게 이겨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다른 방향과 의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으로 그 시간을 참아내며 극복하려 할 것입니다. 힘과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닥쳐오는 파도를 피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전가를 시켜 자신이 살아남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보고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에서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늘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살아남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결국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며 공동체에 불신과 좌절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자기 자신에게 “정말 누구나 다 그런 것인가?”하고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답만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다른 기준과 생각과 희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변모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변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 주는 예표로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일어서시는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그 시기를 주님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어떻게 이겨나가셨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며, 은근슬쩍 자신의 자리를 피하고 살아남으셨습니까? 만약 그러하셨다면 그분의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다른 이를 위해 내가 죽으며, 하느님을 위해 나를 봉헌하고,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 자리에서 참된 의미를 갖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언제나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바보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한 번쯤 주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기보다 용기를 갖고 맞서며 자신의 인생을 새로이 발견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 세상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부활을 통해 세상을 이끄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계제도 설정 및 대구대교구 승격 50주년의 의미

문화홍보실

2012년 3월 10일은 대구대목구가 대구대교구로 승격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이날 교계제도 설정 및 대교구 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미사를 계산주교좌성당에서 봉헌하십니다. 이날 저녁에는 축하 음악회가 개최됩니다.

50년 전에 무슨 일이?

1962년 3월 10일, 교황 요한 23세께서는 한국에 교계제도를 설정하시고 서울, 대구, 광주에 세 관구를 설립하셨으며 한국의 대목구들을 교구와 대교구로 승격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대목구는 대구대교구로 승격되고, 당시 대구대목구의 대목구장이었던 서정길 요한 주교님은 대구관구장이자 대구대교구장 대주교가 되셨습니다. 대구대교구는 같은 해 7월 5일 주교좌 계산성당에서 서정길 요한 대주교님의 착좌와 함께 교계제도 설정 및 대교구 승격 축하식을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교계제도와 대목구

가톨릭교회 안에는 하느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조직이 있는데 이를 교계제도라 합니다.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과 주교의 협조자인 사제와 부제들은 이 교계제도에 속하여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합니다. 이러한 교계제도는 통상 교황님께서 지역 교회에 교구장 주교를 임명하심으로써 설정되지만, 아직 교계제도가 설정될 만큼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선교지역의 교구는 교황대리감목구, 또는 줄여서 대목구라고 부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교황님께서 임명하시는 대리자인 대목구장이 교구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교황님의 사목권을 그 지역에서 대리합니다. 정식으로 교계제도가 설립된 지역의 교구에서는 교구장 주교가 스스로의 권한으로 교구를 다스립니다.

대교구 승격의 의미

대구대목구가 대구대교구로 승격된 것은 대구 지역의 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구원의 도구 노릇을 할 만큼 성숙하였다는 것을 교황님과 세계 교회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인정을 받은 지가 벌써 50년이 된 것입니다.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비유하자면, 태어나서 영세한 지가 100년이요,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만하다고 견진을 받은 지가 50년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지난해에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구가 이제 외적인 성장뿐 아니라 내적인 성숙에 있어서도 그 깊이를 더해가야 이 연륜에 어울릴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비서실장

주일 말씀

제1독서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사악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순명을 보신 하느님께서는 이사악을 죽음에서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완전한 믿음은 계약과 축복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변모를 목격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며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리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희생제사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앙의 표본입니다.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셨습니다(사도 2,23).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이 계획에 순명하시어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러 왔다.”(요한 6,38)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의지로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셨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599-600).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요한1서 4,10)이 되셨습니다.

말씀과 성사 : 미사와 희생제사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코린 11,24)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주님 희생의 기념제를 거행합니다. 단 한 번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은 성체성사를 거행함으로써 현재화되어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제사는 성찬례와 동일한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미사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이 희생제사에 피흘림 없이 계시고 제헌되십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367). 성체성사는 또한 교회의 희생제사이기도 합니다. 성체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신자들의 삶, 찬미, 고통, 기도, 노동 등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봉헌과 결합되어 하느님께 바쳐지고 생활을 변화시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368).

말씀과 생활

-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 하느님께 우리 삶을 어떻게 봉헌할까요? 

십계명 - 1

계명이란?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지침을 계명이라 합니다. 계명에는 먼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 주신 양심이 있고, 이 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이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전반 3개와 후반 7개로 나눌 수 있는데 앞의 세 가지 계명은 사람이 하느님께 대하여 지킬 계명이고, 뒤의 일곱은 사람들이 서로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하심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의 기본 정신을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제1계명 :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라.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느님을 세상 만물 위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흠송은 하느님에게만 드리는 최고의 공경을 뜻합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느님 계심을 부정하는 무신론, 미신과 마법을 믿는 행위, 길흉을 점치거나 마귀를 섬기는 행위,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나 물건을 함부로 하는 행위 등입니다. 미신행사를 돕거나 하느님을

시험하고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나 성전, 축성된 성체와 기물을 훼손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제2계명 :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정성으로 부르고, 하느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헛된 맹세를 하는 일과 하느님의 이름을 써서 욕을 하거나 하느님의 이름으로 남을 저주하는 일, 하느님의 이름을 빌어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 등입니다.

제3계명 :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일요일)을 말합니다.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주일에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미사 성제에 참여하며 거룩한 일에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주일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을 하는 것과 남에게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리 해도 도저히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대송(주님의 기도 33회)이나 다른 기도를 바침으로써 주일미사 의무를 채울 수 있습니다. 참고 주일

오늘의 미사 · 사순 제2주일

【입당성가】 72 다불 산의 예수

【제1독서】 창세 22,1-2,9ㄱ.
10-13,15-18

【화답송】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제2독서】 로마 8,31ㄴ-34

【복음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봉헌성가】 221 받아주소서

【복음】 마르 9,2-10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성체성가】 167 생명이신 천상 양식

【파견성가】 118 골고타 언덕



† 교구청 재의 수요일 미사 봉헌

2월 22일(수)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재의 수요일 미사가 오전 9시 30분 꾸르실료교육관 성당에서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와 총대리 이용길(요한) 신부님을 비롯한 교구청 내 사제들의 공동집전으로 50여 명의 직원들이 참례한 가운데 봉헌되었다.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강론을 통해 “마음과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셨다.

사진 및 기사 제공 : 월간 <빛>



† 제3기 로고스 스피치학교 입학식

제3기 로고스 스피치학교 입학식이 2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2강의실에서 열렸다. 교구 성서사도직(담당:박석재 가롤로 신부)에서 주관하는 로고스 스피치학교는 목소리 트레이닝, 전례(독서,해설,기도), 낭독, 묵상 Speech 실습 등의 교육을 통해 전례봉사자 및 말씀봉사자의 말씀선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총 6주간(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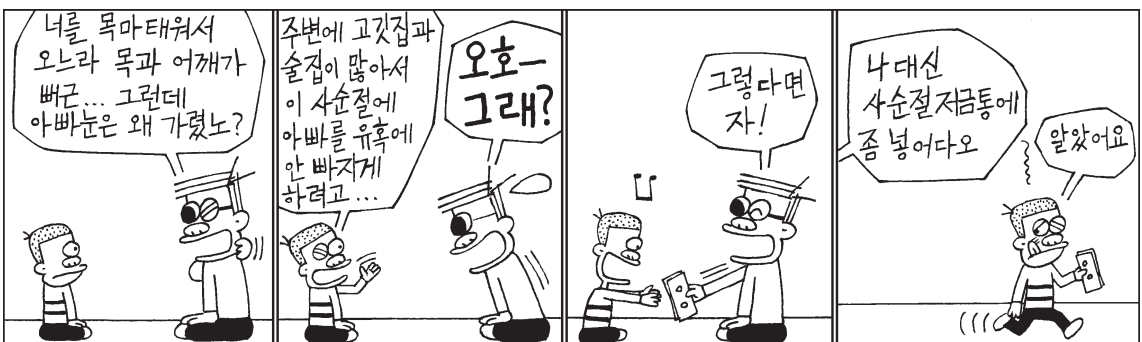
사진 제공 : 교구 성서사도직

† 금주의 주요 교구일정

- ▶ 2012년 3월 7일(수) 11:00, 몽골 울란바토르교구 웬체슬라오 파딜라 주교님 교구장 대주교님 예방
- ▶ 2012년 3월 10일(토) 11:00, 대교구 승격 50주년 감사미사 - 계산주교좌성당
- ▶ 2012년 3월 10일(토) 19:30, 대교구 승격 50주년 기념 축하음악회 - 동구문화체육회관
- ▶ 2012년 3월 10일(토)~11일(일), 주일학교 교리교사연합회 재창립총회 및 교사회장 연수 -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유혹에 안바진 만큼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모임

2012년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모집

일시: 3.10.(토) 14:00

장소: 월배성당 뒤 프란치스코눔

문의: 632-9800 / (011)9594-9441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기다에 성소모임

일시: 매월 넷째 주일 (14:00)

장소: 까리따스 젊음의 집

문의: (010)2568-5231

<http://cafe.daum.net/vocatio>

예수회 성소모임

일시: 매월 둘째, 넷째주 토 16:00~21:00

장소: 예수회관구본부

대상: 35세 이하 미혼남성

문의: (010)7197-7400, vocsj@daum.net

피정

가르멜 기도학교

기간: 2012년 1월~12월

매월 마지막 주,1박2일 피정식

장소: 마산 가르멜피정의집

대상: 고등, 대학, 일반(선착순 24명)

문의: (010)9475-5254, 회비: 4만5천원

2012년 2차 효소 단식피정(참가비: 35만원)

일시: 3.18(일) 16:00~22(목) 점심식사

내용: 질좋은효소, 성경통독, 온천욕 등

버스운행: 3.18(일) 14:00, 동대구역

문의: 한티순교성지 피정의집

(054)975-5151 / (010)5442-6112

강요셉 신부가 지도하는

수성성당 공동체 사순절 대피정

일시: 3.7(수)~9(금) 10:00, 19:30 미사 후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3일 전례피정

일시: 4.5(목) 14:00~8(일) 13:00

장소: 성 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

참가비: 13만원, 선착순: 80명

문의: (054)971-0722

제5차 영성 무료 치유 대피정

일시: 3.16(금) 22:00~18(일) 15:00

준비물: 필기, 세면, 미사 지침

문의: 부산교구성령봉사회영성의집

(055)382-9465~6(전화접수)

거룩한 독서 (LD) 피정

4박5일: 4.25(수)~29(일)

가족피정: 5.5(토)~6(일)

문의: 연화리피정의집(포교베네딕도수녀회)

(054)973-4835

모녀 조이플스테이(3, 4차)

일시: 3.17~18 / 4.14~15(토~일)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010)9056-9005

교육 / 기타

신난다 첫영성체 교리교사 연수

일시: 3.20(화) 10:00~17:00

장소: 만촌1동 성당(회비: 3만 원)

준비물: 교사용, 어린이 교재

문의: 생활성서사, (010)9314-3037

살레시오수녀회 여름신앙학교

일시: 홈페이지 참조

광주광역시청소녀수련원

주제: 주님께서 어린이 여러분과 함께

대상: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신자가족

문의: (062)373-0942 / (010)8621-0940

동성로에서 하는 미사

젊음이 넘치는 거리 동성로! 문화와

예술과 나눔이 있는 미사에 모두 초대

합니다. 미사후 차와 Talk가 있습니다.

일시: 매월 두번째 목요일(3.8) 19:30

장소: 바오로딸 서원

문의: 425-5185 / (010)7449-1117

미사안내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3월 5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밀알후원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3월 5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5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5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5일(월) 오전 11시	형곡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3월 5일(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로 교육관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성시간 및 미사	3월 5일(월) 오후 10시	한티순례자의집
3월 후원자 가정을 위한 월례미사	3월 7일(수) 오전 11시 30분	한국SOS어린이마을 내 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3월 10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주유소
전화 한통하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로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베네딕도)

DACO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안데스 호수소금
동성약국 현영희(아네스) 박준구(베드로)
T.053-766-3815
010-3295-4476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재단
데레사소비선타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청와·아재·신여·정음
신선·가공식품·공산물·생필품
생활·패션잡화·수입주방·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회관 맞은편)
대표이사 장영일(그리스도)신부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멋진인생 에스텍 두피센터
SkinCare / Body / Scalp 탈모두피
지점) 남구, 대곡, 동호, 두류, 만촌, 범어, 산격
서면, 성서, 시지, 칠곡3지구, 침산, 구미롯데
상담예약 1588.8850

전통한복의 명가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 혼수/예단/수이 · 한산모시 전문점
중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상가 115호
☎ (053)421-2827/421-2828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네스)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010-8345-9479
이주석 (요셉)

교계제도 설정 및 대구대교구 승격 50주년 감사미사

일시: 3.10(토) 11:00

장소: 계산주교좌성당

주례: 조한길 타대오 대주교님

축하음악회

일시: 3.10(토) 19:30

장소: 동구문화체육회관

주관: 대구가톨릭음악원 / 교구평협

참가대상: 교구민 전체(1,000명 선착순)

- 17:30부터 현장에서 입장권 교부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틴스타 성교육 총체적인 성

일시: 3.12(매주 월) 총 10회, 10:00

장소: 교구청 별관 3회합실

신청: 3.7(수)까지 전화신청

대상: 성인이면 누구나

문의: 교구 청소년 담당

250-3066 / (010)4162-5393

성모당 안내 교육 및 봉사자 모집

교육기간: 3.12(월)~16(금) 19: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합실

문의: 교구 성모당 담당, 250-3055

수도자와 평신도를 위한

집중 전례음악 연수

일시: 3.12(월) 16:00~14(수) 점심식사

참가비: 수도자(18만원), 평신도(20만원)

버스운행: 3.12(월) 14:00, 동대구역

문의: 한티순교성지 파정의 집

(054)975-5151 / (010)5442-6112

N.I.E(신문활용교육) 학생 모집

첫모임: 3.10(토) 10:30(3개월과정)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뒤)

대상: 유치부~초등1년

문의: (010)9100-4114

가톨릭문화관교육생모집(476-6211)

통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POP, 초크

아트, 롤페인팅, 천연비누·화장품

여성부 인정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생 모집

기간: 3.13~6.12(매주 화)

09:30~18:00

대상: 전문대졸이상 졸업자

교육비: 30만 원(교재비 포함)

문의: 대구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새빛학교 기초 영어·한문반 모집

영어(주 2회): 화, 목요일 13:00

한문(주 1회): 화요일 15:00

문의: 교무실, 476-3100 (교대역)

직원 채용

만촌3동성당 사제관 주방근무자 모집

제출서류: 이력서

문의: 752-5004

※ 근무시간 협의가능

안내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
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권은정(젼마)

부활 군위문품 신청

군중후원회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군위문품을 보낼 예정이오니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3.11(일), 접수: 본당사무실

대상: 신자자녀 현역사병(의경, 전경포함)

※ 훈련병, 교육병, 부사관, 장교 제외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2년 대상자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모임 / 행사

노동자 미사

일시: 3.16(금) 19:30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강당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1

교육 / 모집

서편성가연수(김정선수녀), 발생법(박재연)

일시: 3.4(일) 15:00, 회비: 1만 원

문의: 가톨릭음악원, 255-4847

2012년 1학기 신학강좌 수강생모집

신학(교리교수법, 교회론,

개인 및 대인윤리, 영성신학)

특별(죽일과 신자생활),

신약 및 구약성경, 구약성경입문

다음카페검색: 신학교육원

문의: 660-5105~6

15년 경력
"이현숙의 결혼이야기"
국내 2006.04 매일신문 인터뷰 (피플 "세상속으로")
국제 2009-2010 경북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강사
<http://www.leestory.kr>
054)458-3223 수선나 010-6571-3385
리스토리컬스토리텔링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본관2층

癌 (암) 통합진료 / 맞춤보약 원 방 한 의 원
각종 암수술/항암치료/방사선치료후
면역력 증강 및 원기회복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이 정 현(요셉)
전 대구가톨릭대교수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풀스파랜드 3층

한결같은의원
가정의학과 / 소아과 / 피부과 / 내과
레이저클리닉 / 보톡스 / 필러
053)965-1441
반야월 이마트내 2층·원장 문세민 스테파노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전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BICHE
Organic Restaurant
1F 근거리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매장 비제
2F 유기농 레스토랑 비제 T. 744-2720
3F 몸과 문화 건강문화센터
4F 온열치유센터
T. (053)256-5493 www.bnc.or.kr
사) 몸과 문화 · 황금동 132-5 성김대건 성당 앞

성모아이한의원
국내최초 소아난치병 근본치료 한의원
· 잦은 열감기/기침 · 비염/중이염
· 간질/틱/ADHD/자폐 · 언어장애/보행장애
· 야뇨증/성장장애 · 감기출입
"먹기 좋은 딸기맛 증류한약"
한 의 학 박 사
현 동국대 한의학과 교수 김 성 철(비오)
☎ (053)592-1275

서대구 미르치과
대표원장 박 상 준(안셀모)
미국 Loma Linda 대학교
치주과(잇몸치료/임플란트) 임상조교수 역임
달서구 감삼동 61-5 (2호선 감삼역 1번출구)
☎(053)628-1100

"2대째 30년 전통"
♣ **성심결혼** ♣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 전문직종 및 초혼 재혼 다량 확보 *
* 고졸 여성 상담 무료 *
☎ 644-4007, 558-3003
비산대거리 서부초 옆 류성실(마리아)